



반딧불이의 비행 광주시 북구 충효동 무등산 평촌마을에서 지난 18일 밤 반딧불이 한 마리가 형광색 불빛을 내며 날아가고 있다. 감도 800, 조리개 2.8, 장노출(20초)로 촬영.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반짝반짝 무등산의 밤... “반갑다~ 반딧불이”

청정환경 인증...북구 평촌마을·남구 대촌천서 관찰

5년째 다슬기 풀고 생태하천 등 서식환경 조성 ‘성과’

광주 곳곳에서 반딧불이(개뿔벌레)가 귀환하고 있다. 청·장년층에게 추억의 곤충으로, 어린 아예겐 자연관찰 서적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반딧불이가 가을 밤 형광색 불빛을 뽐내며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환경지표 종(種)으로 여겨지는 반딧불이는 광주가 산업·도시화되면서 모습을 감춰지던 최근 무등산 평촌마을, 남구 대촌천 등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알, 애벌레, 번데기 시절을 지나 성충으로 자라는 기간은 1년 남짓이지만, 불빛을 내며 날아다니는 성충 시절은 길어야 2주인 만큼, 이달 말이면 모습을 감출 것으로 보인다.

20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경부터 무등산 평촌마을(북구 충효동)에서 반딧불이 100~200여 개체가 밤에 불을 밝히고 있다. 수컷 반딧불이 수백 개체가 마을을 흐르는 증암천을 끼고 우거진 풀숲과 주변 논·밭을 오가며 짝짓기를 암컷을 찾아 분주히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암컷 반딧불이는 대체로 풀숲이나 나뭇가지에 앉아 불빛만 쬐고 있는 모양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진한 제 10호 명품마을인 평촌마을은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이 무등산 ‘반디 마을’인데다, ‘반디 민박’, ‘반디 공원’, ‘반디 카페’ 등 반딧불이를 주제로 내세워 마을을 특색있게 꾸

미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마을 주민들은 반딧불이 애벌레의 먹이인 다슬기 수백 kg을 풀어놓거나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등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성충으로 자라기 전 반딧불이는 8개월에 걸친 애벌레 시절 다슬기를 먹이로 수중 생활을 하는 탓에 수질 상태와 먹이 공급이 반딧불이 서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이유로 환경생태학자들은 반딧불이를 대표적인 ‘환경지표 곤충’으로 꼽는다.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지역은 대체로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반딧불이는 남구 대촌천에서도 최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남구 포충사 앞 포충교~칠석보~지석교에 이르는 3km 구간 곳곳에서 지난 6일과 13일 100여 마리의 반딧불이가 조사에 나선 공무원과 주

민들에게 목격됐다. 남구에서는 지난해 9월 대촌천 수계인 덕남동 수생대학습장에서 반딧불이 성체 6마리가 첫 관찰된 이후 무려 1년여 만에 개체수가 급증했다. 이처럼 개체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 2012년부터 남구가 셋강 살리기 사업에 나서면서 주변 논밭에서 친환경 농업이 이뤄지고 생태하천 습지 등이 조성돼 반딧불이 서식에 적합한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

한편 늦여름과 초가을에 반딧불이가 관찰되는 이유는 반딧불이의 생태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반딧불이는 여름, 초가을에 알을 낳고 한 달여 지나 알에서 깨어난다. 그 후 8~9개월 애벌레로 수중 생활을 한 뒤 한달간의 번데기를 거쳐 성충으로 변한다. 반딧불이의 일생 중 불빛을 내며 밤에 날아다니는 기간은 단 2주에 불과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무등산 산악사고 국립공원 3위

3년간 99건--98명 부상·1명 사망

최근 3년간 무등산에서는 99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산은 지리산 등을 제치고 산악사고 발생 건수로는 20개 국립공원 중 상위 3위에 올랐는데, 그 원인은 연간 수백만 명에 이르는 탐방객의 수, 기본적인 등산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탐방 습성 탓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3~2015년 8월) 산악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무등산은 99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산악사고가 난 곳은 북한산이며, 이어 설악산, 무등산, 지리산, 덕유산 순이었다.

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는 북한산이 231건(사망 18명·부상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설악산 104건(사망 10명·부상 94명), 지리산 57건(사망 13명·부상 44명) 등이다. /김형호기자 khh@

문화재 ‘함평 이진풍 가옥’ 일부 소실

목포·나주 등 화재 잇따라

전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함평 이진풍 가옥이 화재로 일부 소실되는 등 지난 주말과 휴일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가 잇따랐다.

20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11시30분께 함평군 나산면 사산길에 위치한 이진풍 가옥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가옥 84.6㎡ 중 20㎡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1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됐다. 이진

풍 가옥은 2004년 전남도 문화재자료 제 251호로 지정된 곳으로, 전통가옥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은 보일러실 전기 단락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주택과 공장에서도 화재가 잇따랐다. 휴일인 20일 새벽 2시10분께 목포시 옥암동 A(48)씨의 아파트 안방 침대 위 전 기장판에서 연기가 나면서 불이 났다.

앞서 이날 새벽 1시10분께에는 나주시 노안면의 한 잠금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김형호기자 kh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9 해질 18:32 달출 13:08 달몰 23:43

푸른 가을 하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7/29	보성	맑음	13/24
목포	맑음	17/27	순천	맑음	17/28
여수	맑음	19/26	영광	맑음	14/28
나주	맑음	14/29	진도	맑음	14/27
완도	맑음	16/27	전주	맑음	16/28
구례	맑음	14/29	군산	맑음	15/27
강진	맑음	13/28	남원	맑음	13/28
해남	맑음	12/28	흑산도	맑음	19/24
장성	맑음	13/28			

◇바다 날씨

시해	남부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면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북~북동	0.5	북~북동	0.5~1.0	
면바다(동)	북~북동	0.5~1.0	북~북동	0.5~1.5	
면바다(서)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운동	40
빨래	7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6:40	11:51
	19:29	00:00
여수	01:05	07:10
	14:00	20:30

◇주간 날씨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	☀	☀	☀	☀	☀	☀
17/28	18/26	17/27	18/24	17/26	16/26	15/25

나주·강진 오리농장 AI 확진

도, 1만4300마리 살처분

나주와 강진의 오리농장에서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의심 오리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나주시 노안면과 강진군 칠량면 오리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바이러스가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해당 농장의 오리를 출하하기 전 시행한 검사에서 H5형 AI 양성 반응이 나타나자 예방 차원에서 오리 1만4300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가족 방역관과 초동 방역팀을 현

장에 보내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18일 오전 0시부터 자정까지 하룻동안 가금류 관련 종사자와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농장은 10km 이내 농장에서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은 조건에서 입식시험, 방역실태 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최소 70일 이후 오리를 재입식할 수 있다.

전남에서는 올해 무안, 나주, 구례, 강진, 영암 등 5개 시·군 29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예방 차원에서 44농가의 오리 65만3300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법원, 5·18 모욕 일베 회원 징역형 확정 판결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베뉴스 트러저장소(일베) 회원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리던 일베 회원 양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사자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

훼손 혐의는 무죄, 모욕죄는 유죄가 확정됐다. 양씨는 2013년 5월 일베 사이트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희생자의 관을 태워 비유했다.

1·2심은 피해자의 모습을 왜곡·회화해 모욕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남	여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편사, 감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재혼

남	여
의사, 변호사 32~65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공무원, 교사 32~58세
대기업 간부 36~59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우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63) 275-7766

www.dvtc.co.kr

초간단, 초간편! 물관리 자동화의 희소식!!

(주)대영 세계 최초 맞춤형 원격조정 MAS시스템 개발성공

기존 인터넷 회선 사용자의 PC에 CD만 넣으면 프로그램 연결완료

인터넷 1회선
MAS

통합관리실 프로그램 연결

현장 상황 CCTV
안내방송
기계동작소리 청취
상대감시
계측 및 제어

설치 가능 장소

- 펌프장
- 배수장
- 양민장
- 배수갑문
- 양수장
- 저수지
- 골프장
- 상하수도

특장점

- 시스템간의 쉬운 호환
- 일반업체가 케이블만 연결하면 공사완료
- 쉬운 유지관리와 비용절감
- 낙뢰, 통신두절시 자체 차단 및 복귀로 24시간 365일 관리 OK

NAVER 물관리자동화 | 검색

Daemyoung 물관리자동화

062) 670-0300